

강정호, 멀티홈런·100안타...태극기 휘날렸다

〈11·12호〉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7회 이날 경기의 두 번째 홈런을 쏘아올린 뒤 그라운드 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강정호 NL 순위

타율	0.290	21위
출루율	0.363	12위
OPS	0.826	16위

■ 95마일 이상 강속구 타율(ML)

1위	강정호	0.513(20/39)
2위	포지	0.472(17/36)
3위	안드루스	0.455(15/33)
4위	계레로	0.455(15/33)
5위	라미레스	0.452(14/31)
6위	이디어	0.452(14/31)

■ NL 신인왕레이스

타율	타율	홈런	타점	OPS
강정호(피츠버그)	.290	12	49	.826
맷 더피(SF)	.304	10	59	.801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250	17	71	.821

MLB 진출 첫 경기 2홈런...피츠버그, SF전 3대 2 승
신인왕·아시아인 데뷔 시즌 최다홈런 기록 '정조준'



를 상대로 얻은 첫 안타다. 강정호의 타격 감은 7회에 다시 빛났다. 강정호는 1-1로 맞선 7회말 바뀐 투수 헨리 스트리클랜드를 상대로 비거리 139m의 좌중월 솔로 홈런을 쳤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첫 멀티 홈런이다. 아울러 그는 이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도 달성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29~30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이틀에 걸쳐 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것은 처음이다. 강정호는 이날 3타수 2안타(2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7에서 0.290(345타수 100안타)으로 높아졌다.

피츠버그는 9회말 스탈링 마르테의 끝내기 솔로포로 3-2로 승리했다. 이날 피츠버그가 친 안타는 4개에 불과하다. 이 중 2개가 강정호의 홈런이다. 강정호의 홈런포가 연말이 가동되면서 미국 진출 첫해에 아시아인 데뷔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거라 관심이 쏠린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프로야구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때려냈다.

강정호는 2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11·12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 1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9일 만에 4번 타자로 나선 강정호는 0-1로 뒤진 5회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마이크 리크의 5구째 91마일(146km)짜리 싱커를 공략해 중월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1호 홈런으로, 비거리는 135m로 측정됐다. 지난 1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4일 만의 대포다.

강정호의 홈런은 이날 피츠버그가 리크

강정호가 내셔널리그 신인왕 외에도 아시아인 데뷔 시즌 최다 홈런 기록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신인 드래프트, 뒷 이야기

대어 한승혁 빅리그 진출 실패 정보 입수

KIA, 하루 전날 지명권 행사 '함박 웃음'

박찬호·김호령도

막판까지 긴장감

한 화제의 이름도 있었다. 장종국 출신의 내야수 박찬호다. 특급 수비 실력과 센스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2014 신인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KIA의 선택을 받았다. 명성보다는 늦게 불린 이름.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에 지명 카드를 날릴까 우려한 관계자들이 쉽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박찬호는 "대학을 가려고는 했지만 높은 순위였으면 당연히 프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늦게 이름이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5라운드에서 불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웃었다. 대학 진학을 생각했던 것은 당연하게 이름이 불리고 싶어서였다.

박찬호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에 가서 체력과 힘을 키워서 1차 지명을 받고 프로에 오고 싶었다. 지금은 프로에 오길 잘했다(웃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루키 김호령에게 '김호령'은 감격스러웠던 이름이었다. 그는 지난해 전체 103명 중 102번째로 이름이 불렸다. KIA가 10라운드 마지막에 선택했던 김호령은 입단 순위의 벽을 넘어 KIA의 외야를 짚주하고 있는 중이다. 김호령은 "드래프트 중계를 봤는데 정말 떨리고 설렘했다. 그러다가 9라운드가 지나도록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했다. 신고선수로라도 도전하자고 생각 했는데 KIA에서 이름을 불렸다. 정말 감격스러웠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마무리 캠프를 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회가 됐다. 현재가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수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전' 성료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우정의 스포츠 대전인 '제19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수시와 전남도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여수에서 열린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선수단 216명, 일본 선수단 214명 등 총 500명이 참가했다.

한일 선수단은 축구·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5종목 18종별 경기를 펼쳐 사이 좋게 9승씩을 나뉘 가졌다. 이들은 또 오토도, 해상 케이ابل, 향일암 등을 방문

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카모토 카즈히코 일본 선수단장은 "바다와 풍광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었다"며 "내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대회 때 배풀어주시는 마음을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신 한국 선수단장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더 큰 꿈과 이상을 세울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0일 여수 디오션에서 '제19회 한일 청소년 교류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환송연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